

Research Topics

이슈 탐구

피델 카스트로의 마지막 연설¹⁾

피델 카스트로

위기의 시대에 민중을 이끌어가는 데는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변화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은, 혁명을 이루어낸 민중이 권한을 위임하기로 선택한 천 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참석한다는 것은 일생에서 가장 큰 영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결과물인 혁명적 인간이 된다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저는 왜 사회주의자가 되었을까요? 더 명확히 말해, 왜 공산주의자가 되었을까요? 공산주의라는 말은 역사상 가장 많이 왜곡되고 비난받은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노동, 재능, 활력의 근간이 되는 모든 물질적인 재화를 빼앗긴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주 오랜 과거부터 인간은 이런 딜레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만, 청취자에게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단지 제가 무지하거나 극단주의자도 아니고, 장님도 아니라는 것, 경제학 공부해서 스스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법과 정치학을 공부할 때도 경제학이 중요했지만 선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무 살 즈음이던 그 당시 운동과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공부를 도와줄 선생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밖에 몰랐고,

1) 이 글은 피델 카스트로의 제7차 쿠바 의회 폐회식(2016년 4월 19일) 연설을 번역한 것이다.(<http://www.cubadebate.cu/opinion/2016/04/19/fidel-castro-el-pueblo-cubano-vencera>)



제7차 쿠바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는 피델 카스트로(출처: <http://www.bbc.com>)

당연히 소련을 절대적인 신뢰했습니다. 러시아혁명이 일어난 지 70년 뒤 레닌의 업적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 무슨 역사적 교훈입니까! 러시아혁명과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 식민주의와 그 불가분의 짝인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에 획을 그은 위대한 사회 혁명의 또 다른 예를 인류가 목도하는 데 새로운 70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큰 위험은 아마도 지구의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인간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대식 무기의 파괴적인 힘에서 연유합니다.

공룡이 멸종한 것처럼 인류는 멸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낼 시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수많은 과학자의 말처럼 태양이 팽창해서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위성을 녹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도 알고 있는, 여러 과학자의 이론이 옳다면, 실천적 인간은 훨씬 더 많이 알아야하며, 현실에 적응해야 합니다. 인류가 오랜 시간 살아남게 된다면 미래 세대의 지식은 우리를 능가하겠지만 그 전에 큰 문제 하나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이 필요로 하는 식수와 자연 자원이 필연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될 텐데, 어떻게 사람들



제7차 쿠바공산당 전당대회(출처: <http://en.granma.cu>)

을 먹여 살리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부, 어쩌면 대다수는 지금 이 연설과 정치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부끄럽지만 정치는 이런 온건한 말에 있습니다. 바라건대, 수많은 사람이 이러한 현실에 함께 고민해서 아담과 이브 시절처럼 우리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술도, 비도, 댐도, 지하자원 없고, 그저 모래뿐인 아프리카의 목마른 민중을 누가 먹여 살릴까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봅시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핵심적인 것 이상으로 이야기를 확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곧 저는 90살이 되지만, 한 번도 이렇게 나이를 먹게될 것이라고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곧 저는 여는 사람과 다름없는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차례차례 떠나겠지만, 쿠바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은 이 세상에서 열의와 존엄성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1960년 9월 26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피델 카스트로. 이때 카스트로는 4시간 29분 동안 연설함으로써 최장 시간 연설 기록을 세웠다(출처: <http://www.nbcnews.com>)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 문화적 재화를 생산해낼 수 있고, 이를 얻기 위해 우리가 쉽 없이 투쟁해야만 한다는 사실의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와 세계의 형제들에게 우리 쿠바인이 승리하리라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이 제가 이곳에서 연설하는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저는 방금 의회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를 위해 투표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주고 경청해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축하를 전하며, 특히 많은 노력을 경주한 라울 카스트로 동지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이며, 호세 마르티와 안토니오 마세오, 막시모 고메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쉽 없는 전진 속에서 빛나는 충성과 단결된 힘으로 우리의 임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정승희 옮김]

정승희 — 번역가